

권불십년?…2007년 17대 닳은꼴 대선구도

임기중 선거 참패·정권 말 지지율 급락·범여권 분열 등
유권자들 10년 국정운영에 싫증…정권교체 가능성 주시

집권 여당의 분열과 야권 유력 주자의 독주와 야권주자 간 선두권 다툼 등이 특징인 이번 대선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 의 ‘데자뷔’(다시 보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야권 쪽으로 기울어진 초반 판세 부터가 닳은꼴이다.

17대 대선이 치러지기 1년 전인 2006년 5월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석만 건지며 사상 초유의 참패를 당했다. 여기에 경기침체 등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06년 4분기 12%(한국갤럽 조사)까지 급락했다.

현재로 돌아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의 후유증으로 작년 4·13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데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4%(한국갤럽 조사)까지 폭락했다.

대선 초반 분위기가 야당의 ‘집안 싸움’으로 시작된 것도 그 당시에 지금이 마찬가지다.

2007년 1월1일 발표된 주요 신문사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40%를 넘기며 독보적인 선두를 달렸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7~20%로 그 뒤를 이었다. 범여권에서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14~18%로 겨우 3위에 올랐을 뿐, 나머지는 모두 지지율 1% 안팎에 머물렀다.

올해도 각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부동의 선두를 지킨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여권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만이 17~22%로 경쟁력을 보였을 뿐, 나머지는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집권세력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고 전 총리와 반 전 총장 모두 엘리트 관료 출신의 정치신인이며,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다 본격적인 대선레이스 개막을 앞두고 기세가 꺾여 연초에 불출마를 선언(고건 2007년 1월16일, 반기문 2017년 2월1일)한 적 역시 같은 상황이다.

아울러 분당(分黨) 등 범여권 세력의 분열도 이번엔 반복됐다.

2007년 1~2월 집단탈당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포함한 한 나라당 탈당파, 옛 민주당 탈당파들과 함

께 선거를 4개월 앞두고 통합민주당을 만들어 열린우리당을 흡수 통합했다.

이번에는 탄핵안 가결 직후인 작년 말 새누리당을 집단 탈당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올해 초 바른정당을 창당해 복수 보수정당 시대를 열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이번 대선은 10년전 처럼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진보 정권 10년 만에 권력 이동이 있던 것처럼 이번에는 보수 정권 10년 만에 진보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한쪽 진영이 두 번 연속 대통령을 배출해 10년간 국정을 운영하면,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반대쪽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속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범여권에서 숨은 보수표를 결합할 대권주자가 나타난다면 결국 본선에서는 ‘51 대 49’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

野 대선주자 부인들 ‘내조 전쟁’

김정숙씨, 6개월째 매주 1박2일 광주·전남 찾아 경쟁
김미경 교수 ‘여수댁’ 친근감…주말 광주서 배식 봉사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둘러싸고 ‘내조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씨가 호남의 ‘비문’(비 문재인) 정서 완화를 위해 지난해 추석 이후부터 거의 매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도 호남에서의 ‘안풍’(안철수 바람)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선 문 전 대표의 부인인 김씨는 매주 화요일이면 광주와 전남지역을 찾아 1박2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씨는 주로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을 돌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틈틈이 지역 종교지도자, 시민사회 원로 등 오피니언 리더는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쓴 소리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비론 정서를 나뉘 완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남모르게 광주·전남 지역을 찾았던 안 전 대표 부인인 김 교수도 본격적으로 지역 민심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여수 출신의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그동안 시간을 내지 쉽지 않았지만 겨울 방학을 맞아 고향 민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4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노인복지회관 배식 봉사를 시작으로 여성 경제인 간담회, 여성 당원들과의 만남, 무등·송정시장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김 교수가 여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여수댁’이라는 애칭이 생기는 등 지역 민심의 반응도 좋아 안 전 대표의 ‘호남 사위’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주말을 이용하는 등 시간이 나는 대로 광주·전남지역을 꾸준히 방문할 계획이어서 호남에서의 ‘안풍’ 재현에 상당한 역활이 기대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與, 조기대선용 당규 개정
탄핵심판 직후 당선관위 구성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직후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선 후보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이달말~3월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 결과가 나오면 새누리당은 즉각 선관위를 구성, 대선후보 등록 신청을 공고하고 이후 선관위는 경선을 올정한다.

경선철의 핵심은 국민 참여 선거인단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 선거인단의 구성 방식 등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8대 2의 비율로 반영토록 규정했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25%, 나머지 75%를 당원과 일반 국민이 절반씩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는 당규 개정으로 이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 관계자는 “다음 주말까지 경선을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경선철을 만들어도 역대 경선에서 경험했듯이 주요 후보들이 정해지면 다시 ‘물 미팅’을 해야 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직후 구성될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경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바른정당 유승민(왼쪽)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창업과 관련한 정책공약 발표를 한 후 창업 현장 전문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통해 문답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潘 떠난 與, 대선 출마 러시

김문수·홍준표 등 12명 거론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그동안 몸을 바짝 낮추고 있던 잠룡들이 하나둘 고개를 치켜들면서 여권의 대권 레이스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5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여전히 출마 여부를 놓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최소한 12명에 달하는 주자들이 경선판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정진석·조경태·안상수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등 당 안팎에서 자전타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까지 포함한 숫자다.

여기에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민생현장을 누비고 있고, 원 유철 전 원내대표는 6일 출마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회창·이인제·이홍구·이수성·이한동·박찬종·최병렬·최형우·김덕룡 등 9명이 맞붙었던 지난 1997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 대선 경선 상황에 빗대 ‘신(新) 9룡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들이 야권 주자들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황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한 자릿수 지지율은커녕 아직 지지도 조사 대

상에도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분위기’를 잡아줘야 할 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것을 우려, 선부르게 경선체제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대권 레이스가 일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제외하고는 ‘잡룡(雜龍)들의 싸움’으로 희화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또다른 일각에선 이들 군소주자가 대중적 인지도 제고를 통해 지지세장 재선을 노린단든지, 다음 국회의원에서 공천을 보장받으려는 ‘몸값 올리기’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보수의 힘’·‘국민제일당’·‘행복한국당’

새누리 새 당명 3개 압축

새누리당의 새 당명 후보가 ‘보수의 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 등 3개로 압축됐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새로운 당명과 로고를 주제로 회의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격론을 벌인 끝에 세 가지로 압축했다”며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미는 ‘보수의 힘’에 호평이 많았지만, 굳이

당명에 ‘보수’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대위원은 “의석 감소로 대선에서 기호가 2번으로 바뀌는데, 당명까지 바꾸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당명 개정에 반대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주초에 여론조사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들 3개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비대위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당 로고와 상징색은 새 당명이 결정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文캠프 합류’ 전윤철, DJ기념관 이사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로 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광주일보 2월 3일자 3면)이 자신이 맡고 있던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직을 지난 4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기념관은 당분간 김성재 부이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표 측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캠프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이사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대중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다. 참여정부 때는 감사원장을 지냈고 당시 문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연이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담양 대덕 특산물

호두농장

무公害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효도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검토 무농약 인증

2016년 산림청장상 수상

담양 대덕 **호두농장** 대표 **진 철 호**
061-382-4728 / 010-3604-6712
전남 담양군 대덕면 남대덕로 424-2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